



마다가스카르
이광수, 김정아 선교사의
중보요청 나눔입니다...^^

마당 구멍...??..!!

그리스도 대사 교회 지붕에 구멍이 엄청 많이 뚫어져
있는건 알았지만 교회 마당에도 수많은 구멍이...???

가만 살펴보니 그 구멍 속에 "게"들이 살고 있네요..
수시로 바쁘게 들락 날락 거리는데..!



문제는 바로 옆이 교회의

간이 화장실이라 오래 된, 약간 푸른 빛을 띤 넘친 내용
물이 밖으로 흘러 나와 그냥 모래와 흙 바닥인 마당으로
스며드는데... 으~::~! π

녀석들.. 하필이면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니...ππ

무룬다바 방문

지난 4월 1일~3일, 저는 무룬다바엘 다시 다녀왔습니다.
차를 렌트해 기사와 함께 토요일 새벽 4시에 출발했는
데 오후 3:30분에 도착..!! 11시간 30분 소요! 역시 전문
기사는 다르네요..ㅎ 요즘 계속되는 비 때문에 길이 더
깨진 것 같은데.. 후와~~ 정말 내 차라면 이렇게 깨
진 길을 이런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..?? 차 전체가 부
서질 것 같은 빠그덕 거림 속에서도 그냥 아랑곳 하지
않고 달리고.. 급기야는 중간에 펑크가 나고.. 충분히 펑크
가 날 만 했죠..ㅋ 깨진 도로를 찍었는데 그 링크를 아
래에 보내드립니다..ㅎ 마다 지방 도로의 모습...^^

지난 1일 오후에 도착 후 교회를 방문해 목사님과 공사에
대해서, 2일 주일 순서에 대해 이야길 나누고 전체 공
사비 중 첫 번째 분량을 전달했습니다.

교회에 인터넷이 없어서 세세한 공사 진행 상황(사진)
을 제가 전달 받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. 마다 통신사의
포터블 모뎀을 하나 구입해 드리고 사진 전송을 위해 사
용할 중고 노트북 (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도네이션 받아
갖고 온...ㅎ)을 하나 전달해 주고..ㅎ 완전, 엄청 좋아들
하셨습니다..ㅎ



(교회 앞마당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된다는...
...심할땐 교회 안까지...ㄷㄷ)

2일(주일) 9시. 어른 반, 어린이 반 정도로 성전을 반쯤 채운 주일 예배엘 참석,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성도들에게 공사에 대해 이야길 하며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감사와 감격으로, 기도로 잘 잡으시라고, 열심을 다해 성전을 함께 새롭게 일구어 가자고 격려를 했죠.



교회 성도님 처음 뵈었지만 순간 하나됨을,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 분들의 표정에서, 미소와 함께 풀어지는 환한 얼굴에서, 웃고 있는 눈동자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ㅎ 진한 감사...^^ ^^

예배를 마친 후 밖으로 나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고 다 같이 마당에 나가 함께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하나된 마음으로 세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더 가까이 좁혀 제가 다시 마무리 기도하고... 이 모든 공사의 일들을 아버지 손에 위탁했죠. 감사의 마음이, 감격이 우리 모두를 감쌌습니다.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지요...^^



공사는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공사 후원금으로 하지만 공사 인건비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매 주일 헌금으로 담당하겠노라고 결정들을 했습니다. 스스로들...^^ 그러나 아마 인건비도 웬만큼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. 성도들의 삶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 가시거든요... ㅠ 함 봐야겠어요.



공사 내용

공사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... 원래는 지붕 양철 교체 만을 위해 기도편지를 드렸었는데 기도편지와 함께 금방 전체 금액(180만원)이 채워졌어요. 그래서 공사비 후원을 종료 했었는데... 몇몇 분이 계속 꼭 이 교회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는 요청을 하심을 보며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지붕 교체만이 아닌 교회 전체의,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까지 다 다루시길 원하심을 느껴 뒤늦게 그 때까지 새롭게 요청하셨던 몇몇 분들의 후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붕교체와 함께 다음의 부분들을 수리하기로 교회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.

(1차: 약 2주간 소요)

- 지붕 양철 교체 (지난 주간에 이미 교체 되었음)
- 지붕 받침 나무 10여개 교체
- 교회 나무 출입문 3개 교체
- 교회 외부 정면 나무 판자 벽 전체 교체



(2차: 약 3주간 소요)

- 교회 외부 전체 벽 아래 기초 보완공사 (벽 아래 부분이 부실해 벽 전체가 내려 앉을 상황임)
- 교회 실내 전체 시멘트 바닥 높이기 (10cm 높임. 바닷물이 교회 안으로 종종 들어오는데 바닥 10cm 높은게 엄청 차이가 있다 함)
- 교회 외부 나무 벽 전체 페인트 칠
- 성전 입구 디딤돌/발판 교체



(3차: 약 3주간 소요)

- 교회 부엌 신설(목사님 가정도 이 부엌을 함께 사용할 예정. 지금까지 부엌이 없이 지내셨음)
- 교회 화장실 신설 (3칸)
- 목사님 사택 옆 입구에 샤워실 설치 (지금까지 씻을 공간이 마땅히 없어 교회 나무 담 안에서 씻으셨다 하심)
- 교회 플라스틱 의자 100개 구입 (바닷물이 교회 안으로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자가 좋다고 함)



(상좌: 현재 화장실, 새 화장실 위치, 하좌: 부엌 위치, 샤워부스 위치)

위의 내용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전화, 문자, 이메일로 연락하며 공사 목록, 견적을 뽑고 뽑아진 내용과 금액을 건축 전문가에게 확인하고.. 너무 쪼으니까 교회 측에서 짜증도 내고 공사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느냐고... ㅋ 하여간 그래서 3월 말에 공사 목록, 예산을 최종 결정 했고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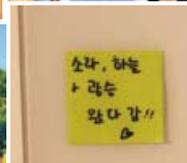
월 1일날 제 방문을 시작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 1, 2, 3차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각 분량에 대한
 예산을 순차적으로 송금할 예정이고 모든 사용할 비용의
 영수증을 노트에 일일이 다 붙여 보관해 저희가 사진을
 통해 확인하며 공사가 다 마쳐지게 될 6월 경 저와 아
 내가 다시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
 을 가지려고 합니다. 지난 주간에 이미 지붕 양철 교체를
 완료하고 계속 다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..^^

이 중보요청 특은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만 공사비를 후원
 하신 분들을 위한 단체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 교회에서
 2일에 한번 씩 전달되어 오는 공사 진행 사진을 추려
 진행 상황을 가능한대로 자주,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 다. 공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
 립니다....^^

저희는 이런 “공사” 쪽의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관
 심도 없어서 완전 문외한인데 왜 이런 일을 아버지가 맡
 기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러나 일단 맡았으니 분명하게 일
 이 진행되고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, 귀한 헌금 사용에
 아무 탈이 없도록, 아버지가 계획하신 이 일들을 두렵고
 떨림으로 잘 이루어 가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지난 한달간 저희는...

-엄마 아빠, 그리고 고향(...^^)을 방문한 소라, 하늘이,
 광승이와 두 주간 동안 저희는 그야말로 천국의 시간을 가
 졌습니다...ㅎ 여행도 했고 꿈의학교, 탁아소를 방문해 갖
 고 온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이들이 어렸을
 때 살았던 집, 학교, 특별히 옛날에 정말 예뻐해 주
 셧던 몇몇 한인 분들을 초청해 아이들이 식사를 대접하
 고.. 또 식사도 엄청 대접 받고..ㅎ 안시라베 집에 와서
 는 오랫동안 엄마의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같이 찬양하
 고 기도하며 녹음도 하고 ...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
 다. 사랑스런 녀석들, 자랑스런 녀석들...



(우리 이쁜 소라의 메모...ㅎ)

저희들, 놀며 즐기며 녹음했던 링크를 아래에 보내드립니다..ㅎ

-이곳 대학교에서의 말씀과 음악강의 제안이 쉽게 척척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..?? ㅠ ㅠ 대학과의 첫 만남에서 반응들이 완전 좋아 “역시나~~”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답들이 없습니다..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음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원하시나..? ..하는 마음이 들며 요즘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도 부탁드립니다.

-다음 주부터 아내는 이곳 한 크리스천 대학에서 고, 대학생 20명 가량으로 구성된 한국어 클래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한국어와 말씀을 적절히 섞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. 이곳 젊은 아이들 사이에선 BTS가 완전 인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.ㅎ (사진)

-꿈의 학교 집주인으로 부터 현재 랜트비의 약 3.5배에 해당하는 랜트비 인상 요청을 받고 저흰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..ㅠ 그 랜트비를 다 줄 상황은 안되고 학교를 옮길 만 한 다른 주변 장소를 찾고 있는데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. 기도 부탁드립니다.

-3일 전, 아버지의 집(탁아소) 어린아이 한명이 탁아소 수업을 마치고 집엘 간 후 집에서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 일로 저희 교사들 전체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. 더구나 검사 결과 이 아이의 배출물에서 독극물이 나왔다는데 그 아버지가 가난을 비관해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이 있다 합니다. 마다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하는데...ㅠ 이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...ㅠ ㅠ

감사합니다.

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...^^

2023. 4. 10.

Madagascar 안시라베에서

이광수, 김정아 선교사 드림.



(마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맑은 하늘...ㅎ)